

17

교회 안의 질서

벧전 5:1~6, 롬 16:1~16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87장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배울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압니다.
2.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한 자를 대적하시되 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5,6)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이 있을찌어다 (벧전 5:14)



을 이해하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관찰해 보면 이 우주가 정확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칙과 질서를 어기며 방황하는 별들을 위하여 감감한 흑암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이를 어겼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있고,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질서가 존재하고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 순복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 평화가 유지 됨을 알려주십니다. 학교, 사회, 국가 안에도 질서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질서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또한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의범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함을 나타내는 간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 5:5)

Likewise you younger people, submit yourselves to your elders. Yes, all of you be submissive to one another, and be clothed with humility, for “God resist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1 Pt 5:5)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교회에는 장로들과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① 교회 어른들 :

② 젊은 형제자매들 :

2

교회 내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잠 18:12, 약 4:6, 벰전 5:5~6) 적어봅시다.

3

사도 바울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라고 권합니다(롬 16:3~16). ‘문안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자세로 문안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문안은 ‘안부를 여쭙다’는 의미이다.)

4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문안하고 있나요? 나의 생활 모습을 점검해 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대하 26:16

의

잠 11:2

화

잠 15:33

↑

잠 16:18

↓

잠 18:12

↓

사 57:15

↓

약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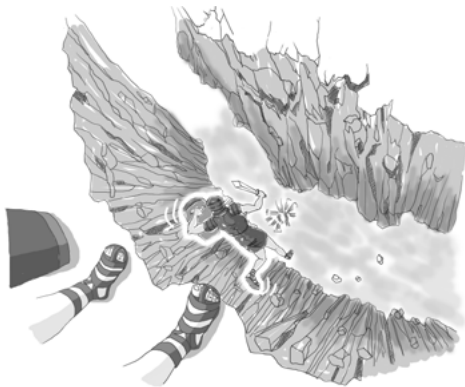
놀라운 순종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과 위대한 전략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의 왕을 불러내어 항복하고 도시와 군대를 알렉산더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군대를 일렬로 세운 후 낭떠러지의 꼭대기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해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열 명의 병사가 떨어져 죽은 후 알렉산더 대왕은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요새도 견디지 못할 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7~8)



질문 있어요~



‘교회’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이 있고 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 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전 1:2)

여기서 교회는 성령으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50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에클레시아(ecclesia)’, 즉 ‘구별된 무리, 빼어난 무리’라는 뜻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4백년 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어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했으며 이것은 곧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참된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사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행 7:38)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었던 모세를 가리키는데, 이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또 애굽왕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은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제는 사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를 불러 주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또한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유익한 교제를 위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많은 지체가 한 몸 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은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손과 발, 귀, 눈 등 여러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각각의 은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삯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교회 안의 질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셔서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리활약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